

• 신명기 24:19-22

하나님이 금하시는 탐욕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네 이웃의 집’에 있는 것 중에서도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출 20:17). ‘집’은 건물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창 7:1). 여기서 집은 아들, 며느리,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당시에는 아내도 소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탐욕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10계명은 제7계명과 제8계명을 포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제8계명)는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고 흠치는 행동을 금하는 계명입니다(출 20:14-15). 제10계명이 다른 점은 그러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탐욕, 즉 탐심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회적 부정, 불의, 부패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과 소유에 관한 생각과 태도를 바로 하라고 가르칩니다(눅 12:15, 21).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물질은 득보다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잡히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신 24:19-22).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말쑥에 비추어 삶을 조정하지만, 세상 가치를 우선으로 하면 필요와 윤희리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십시오. 출애굽과 광야 훈련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참된 필요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탐욕에서 비롯되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마 6:11).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용할 것을 구하며 자족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나는 물질(소유)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①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 ②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